



제3의 길 신자유주의의 대안인가?

앤토니 기든스의 논의를 중심으로

신광영

한림대 교수 사회학과

신 자유주의와 사회민주주의를 대체하는 “제3의 길”이 거론되고 있다. 신자유주의는 이미 세계적인 수준에서의 경제적 불안정을 낳았고, 유럽에서와 같이 이미 실패로 판명되었다. 경제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장에 모든 인간의 운명을 맡기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이다. 1970년대 후반부터 등장한 신자유주의 실험은 경제문제를 전혀 해결하지 못한 채 교육과 복지 부문의 삭감

으로 많은 사람들을 한계상황을 내몰았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지지를 잃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제 유럽은 15개 국가 가운데 2개 국가를 제외하고는 좌파 정당이 집권하고 있다. 이것은 지난 십여 년간 지속된 신자유주의 공세에 대한 유권자들의 평가를 반영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실 정치의 변화는 고전적인 좌파정당에 대한 맹목적인 지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오

하려 좌파 정당들의 정책 변화와 자체 혁신에 대한 지지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앤토니 기든스(Anthony Giddens)가 한국을 방문한 이후 그가 주창한 제3의 길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시작했다. 토니 블레어 영국 수상의 정치이념의 이론적 토대로 알려진 기든스가 제시한 “제3의 길”에 대한 이론적 특성과 평가가 우리에게도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기든스가 제시하는 제3의 길을 분석적으로 살펴보는 것도 가치 있는 일일 것이다.

1. 제3의 길 : 역사적 의미

제3의 길은 역사적으로 다양한 의미를 지니면서 변해왔다. 1937년 미국의 신문 기자 차일드(Marquie Child)가 스웨덴의 사회민주주의 체제를 서구식 자본주의도 동구식 사회주의도 아닌 또 다른 사회체제라고 보고 이를 “제3의 길”이라고 불렀다. 여기에서 제3의 길은 계급간 불평등을 필연적으로 양산하는 시장자본주의 체제와 비민주적인 방식으로 평등주의만을 실현시키려는 국가사회주의 대신에, 민주적인 방법으로 국가의 시장 개입과 복지제도를 통하여 부를 재분배하여 시장 자본주의의 병폐를 제거하려는 사회경제체제를 의미했다.

기든스가 제창한 제3의 길은 20세기 후반 서구 자본주의 사회의 새로운 대안으로서 차일드가 언급한 제3의 길과는 다

른 의미를 지니고 있다. 먼저 기든스는 고전적인 좌우 정치 대립은 더 이상 중요한 대립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 서구와 같이 제조업 종사자들이 계속 축소되어 노동계급이 줄어들고 있고, 동구와 같이 국가에 의한 계획경제가 실패한 상황에서 유일한 대안은 신자유주의와 구사회주의를 넘는 “제3의 길”이라는 것이다.

2. 20세기 보수주의

기든스의 논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념적 또한 정치세력으로 존재하고 있는 보수주의와 사회주의에 대한 비판을 출발점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의 비판을 간단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① 구보수주의

이제는 완전히 죽어버린 구보수주의는 위계질서, 집합체와 국가의 우위성 및 신성을 강조하는 이념으로 개인과 민주주의에 대한 부정으로 특징지워 진다. 구보수주의는 유기체적 사회관을 골간으로 하여 파시즘과 연결되었고, 공산주의와 마찬가지로 완전히 파산한 정치 이념이라는 것이다.

② 신보수주의

유럽의 신보수주의는 구보수주의와는 달리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를 인정하지

만, 이러한 교회와 가족과 같은 사회적 영역의 제도를 통해서 도덕적 가치를 유지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미국의 신보수주의는 구좌파의 한 뿌리에서 출발한 것으로 시장경제와 경제성장이 필수적이라고 믿지만, 경제성장을 위해서 정부가 지나치게 경제에 개입하는 것에 반대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 뿌리깊은 도덕적 신념 체계가 결여된 자유주의가 사회의 생존을 위협하는 현실에 대해서 비판적이다.

③ 신자유주의

보수주의의 또 하나의 흐름인 신자유주의는 신우파로서 자본주의가 역사적으로 가장 효율적인 경제체제라는 신념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기든스에 의하면, 구보수주의자들과 대조적으로 신자유주의는 경제적인 차원에서 개인주의와 자유주의를 강조하고 이들이 민주주의의 성패 여부를 결정짓는 요소라고 보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에게 “시장은 자발적 사회질서의 일차적 예이고, 주된 제도적 주자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신자유주의자들은 정부의 경제개입이나 복지정책은 시장의 비효율성의 원인이 되고 사회의 위기를 낳는다고 본다. 즉 “시장을 바로 잡으려는 시도는 시장으로 인하여 증진된 자유를 억압하게 된다”는 것이다. 신자유주의는 도덕적으로는 국가의 기능을 약화시키고 가족을 강화시켜 복지기능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가족을 강화시켜

야 한다는 가족주의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그러므로 전통적인 가족주의를 붕괴시키는 폐미니즘, 동성애, 성적 개방 등을 공격하고 가부장제의 강화를 내세우고 있다.

기든스에 의하면, 최근 신자유주의가 우세했던 이유는 신자유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정부의 지나친 시장 개입과 가족과 국가에 대한 전통적 가치의 회복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공적이었던 케인즈주의를 비효율적으로 만든 사회변동이다. 그는 현대사회의 변동은 대중의 사회적 성찰성을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이루어졌다고 본다. 사회적 성찰성이 낮은 단순 근대화의 세계에 적합하였던 케인즈주의가 성찰적 근대화의 세계에는 더 이상 적합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3. 20세기 구사회주의

사회주의는 지난 2세기 동안 진보주의의 상징으로 작동했다. 보다 평등한 경제적 조건과 자유로운 정치적 질서의 형성이라는 역사발전의 방향성을 주장한 사회주의는 기존의 자본주의 체제를 해체하기 위한 정치적 이념으로 기능했다. 기든스는 20세기말에 유럽에서는 이를바 “역사의 전위”로서의 사회주의가 이제 공산주의 몰락과 함께 계몽주의의 후예로서 역사적 유물이 되어 버렸다고 진단하고 있다.

기든스는 20세기 말에 유럽에서는 이른바 “역사의 전위”로서의 사회주의가 이제 공산주의 물发挥作用 함께 계몽주의의 후예로서 역사적 유물이 되어 버렸다고 전단하고 있다.

① 민주주의와의 긴장관계

기든스는 역사적으로 사회주의의 이름이 민주주의와 긴장관계를 가지고 있었다고 해석하고, 무르주아 민주주의에 대해서 비판을 했던 사회주의자들이 내세우는 민주주의가 다행히 민주주의를 인정하기 않았기 때문에 정치적 다원주의를 부정하고 있다고 보았다. 또한 그는 사회주의가 기존의 민주주의 비판에는 성공하였으나, 대안으로서의 정치권력의 민주화 문제를 제기하고 논의하는데는 성공하지 못하였다고 보았다. 그 결과 소비에트식 혹은 폴 포트식 정치체제가 등장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② 계몽주의 전통에의 집착

기든스는 혁명적 사회주의의 경우도 미래로 도약한다는 의미에서 혁명은 전통의 청산을 포함하는 계몽주의 전통을 따르고 있다고 보았다. 혁명적 사회주의자들의 복지국가 비판은 급진적 사회변혁의 에너지를 다른 곳으로 돌리고 있다는 점에 근거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기든스는 서구 맑스주의자들이 우파

의 오랜 주장인 소련 공산주의가 경제적으로 부실하고 정치적으로 전제주의적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 왜 그리 오랜 시간이 걸렸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며 서구 맑스주의자들이 사회주의의 미래를 소련이 아닌 제3세계 국가들에서 찾기조차 하였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는 소련식 혁명적 사회주의도 케인즈주의와 마찬가지로 단순한 근대화의 세계에 근거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③ ‘사이버네틱 모형’의 한계

기든스는 소비에트가 의존하고 있었던 사이버네틱 모형의 한계로 인하여 물락하였다며 진단한다. 복합적인 교환이 이루어지는 경제에서 형성되는 시장가격은 국가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없다는 이유에서 거래가 공간적으로 한정된 국지적 지식이며 동시에 관행적인 지식에 기초하여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사람들의 선호가 안정되어 있고 경제적 과정이 단순한 곳에서 경제개입이 성공할 수 있지만, 성찰적인 개인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경제행위는 예측조차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시장에 의해서 이루어진 하의 상당식 의사결정 과정과는 다른 중앙계



'제3의 길'의 이론적 배경이 된 앤토니 기든스의 저작.

회에 의한 외사결정은 국가결정의 우월성과 효율성을 암묵적으로 전제하는 사 이버네틱 모형이다.

④ 불확실성에의 대처 미흡

기든스는 현대 사회의 변동이 소비에트식 공산주의나 사민주의가 기초하고 있었던 사회원리를 변화시켰다고 보고 있다. 그는 지난 40~50년에 걸친 산업 사회의 변화가 "인위적 불확실성"을 증대 시켰다고 보고 있다. 인간이 자연과 사회에 대한 과학적이고 인위적인 통제를 통하여 인간의 미래에 대한 통제를 할 수 있다고 믿어왔고, 이것은 한편으로는 과학에 대한 믿음과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주의 정치 이념이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더 많은 지식과 더 많은 통제가 더 큰 인위적 불확실성을 놓고 있다는

것이다.

기든스는 이러한 불확실성을 강화시키는 요인으로서 세 가지를 들고 있다. 첫째는 국지적인 활동이 전 지구적 과급력을 갖게 되는 전 지구화이다. 둘째는 종교나 인종을 토대로 전통을 복구하려는 후기전통적 전서의 등장이다. 셋째는 삶의 조건에 관한 모든 정보를 수집하고 평가하여 행동하는 사회적 성찰성의 확장을 들고 있다.

⑤ '보수주의'로서의 사회주의

기든스는 전통적인 사회주의가 전 지구화 수준이 낮고 사회적 성찰성이 낮은 사회에서 적용될 수 있는 제도로서 사회 성원들의 선호가 단순하고 습관이 획일적인 사회에서 기능할 수 있는 것으로 계획경제에서 볼 수 있는 "사이버네틱 모형"에 근거하고 있다고 본다. 그러므로 행위자들이 자율적이고 또한 다원화되어 고도로 복합적인 체계를 이루고 있는 현대사회에 기능적으로 적합하지 않은 체계라고 보는 것이다. 그 결과 오늘날 사회주의자들이 "과거의 것"을 보전하려는 보수주의자가 되었다고 비판하고 있다. 오늘날 복지국가를 지키려는 유럽의 사회주의자들이 오히려 이제 보수주의자들의 상징이라고 보는 것이다. 더욱이 그는 생산의 사회화를 통해 자본주의 체계의 "불합리성"이 극복될 수 있다고 믿었던 사회주의는 구보수주의처럼 사장되었다.

오늘날 복지국가를 지키려는 유럽의 사회주의자들이 오히려 이제 보수주의자들의 상장이라고 보는 것이다. 더욱이 그는 생산의 사회화를 통해 자본주의 체계의 "불합리성"이 극복될 수 있다고 믿었던 사회주의는 구보수주의처럼 사장되었다고 보았다.

고 보았다. 경제적 규제에 대한 "사이버네틱 모형"의 효율성 쇠퇴가 사회주의 계획경제 물력의 원인이었다는 점에서 생산의 사회화 모델은 더 이상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념이 되었다고 보는 것이다.

같은 이유로 기든스는 기존의 복지국가 용호는 더 이상 설득력이 없다고 보고 있다. 서구 사회주의자들에 의해서 용호되고 있는 복지국가의 경우도 개인적인 삶의 완성과 관련되지 못하고 관료화, 복지수혜자의 소외, 국가재정악화 등 문제를 낳고 있기 때문에 복지국가에 관한 논의는 수세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복지국가의 성공이 복지국가를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전후 복지국가의 취약성은 경제적 효율성과 재분배와의 관계가 약하다는데 있다고 본다. 서구의 복지국가에서 가장 혜택을 받은 집단은 빈곤층이 아니라 중간계급이었기 때문에 경제적 불평등을 약화시키는데도 실패하였다는 것이다.

4. 기든스의 대안

① 적극적 복지와 생활현장의 정치

기든스는 삶을 위협하는 요소들에 대

한 통제의 방법으로 복지제도가 발달하였지만, 오늘날 위험요소는 과거와는 달리 인위적 위협이라는 것이다. 인위적 위협은 위협의 원천이 일상생활에 있다고 주장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방어적 복지가 아니라 적극적 복지 개념을 제시한다. 또한 인위적 불확실의 증가는 계통주의적 근대성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 문제가 발생되는 생활현장의 정치를 새로운 정치로 제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인위적 위협으로서 암과 같은 질병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흡연을 막아서 암의 발생을 줄일 수 있는 생활상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기든스가 중시하는 것은 발생적 정치이다. 이것은 기존의 사고틀을 전면적으로 변화시켜 서구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자는 생각에 기초하고 있다. 먼저 복지국가에서 적극적 복지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복지가 위기 대처수단으로서 "노동이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사회원리"인 생산성주의보다 균원적인 삶의 관심과 연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생산성주의는 노동을 여타의 삶의 영역과 분리시키고, 개인적인 삶을 외해시키는 경향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생산성

주의가 아닌 생산성 즉 임금노동에 투하되는 시간에 대한 보상이 지향되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적극적 복지는 연대성의 보호라는 차원에서 물질적 복지 수준뿐만 아니라 복지 국가가 간과하고 있는 정신적, 감정적 상태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노인문제와 관련하여 기업이 일정 연령의 노동자들을 퇴직시키는 것은 생산성 주의에 기초한 것이며, 이들이 겪는 삶의 단절과 자아 정체성 혼란 등의 문제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행동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복지국가는 퇴직한 노동자들을 비생산적인 인구로서 보조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자율적인 결정에 따라서 일을 선택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② 발생적 평등 모델

적극적 복지에 기초하여 기든스가 제안하는 보다 포괄적인 대안적인 모델은 발생적 평등 모델이다. 이 모델의 핵심은 불평등의 약화가 아니라 불평등의 극복을 목적으로 하는 모델이다. 이 모델은 부유층과 빈곤층이 생활양식의 변화를 전제로 하여 '노력의 협상'과 관련된 협약을 맺고 다양하게 등장하는 인위적 위험에 대처하여 상호 책임성을 바탕으로 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 생활양식의 변화는 풍요의一面에 감추어져있는 복구할 수 없는 환경파괴에 직면하여 생활양식을 바꾸고 생산성주의에서 생산성 지향

으로 태도를 바꾸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부유층과 빈곤층간의 '노력의 협상'은 부유층이 지니고 있는 노동에 대한 태도를 변화시켜 고용기회를 확대시키는 것이다. 여기에서 국가의 역할을 신자유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일방적인 후퇴가의 존성이 아닌 자율성을 창출하는 복지서비스의 공급과 빈곤층과 부유층의 협정을 이끌어 내고 사회적 책임성을 고양시켜야 하기 때문에 다양한 자발적 결사체들과 협조를 해야한다는 것이다.

5. 평가

고전적인 사회민주주의가 케인즈적 경제개입과 복지정책을 강조하였다면, 기든스가 제시한 "제3의 길"은 생태위기와 복지국가 위기를 겪고 있는 유럽 좌파들이 찾을 수 있는 현실적인 문제 해결책이다. 현재와 같이 높은 실업률(현재 유럽 평균 실업률은 약 12%에 이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유럽사회에서 전통적인 복지를 강조하는 것보다 고용을 더 강조하여야 한다는 발상이다. 고용창출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높은 수준의 교육을 통한 인적 자본의 축적이다. 또한 건강한 삶은 통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이미 유럽에서 전통적인 좌파는 거의 사라졌다. 기든스가 주장하는 것처럼, 소비에트식 혹은 폴 포트식 사회주의는 더 이상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현재와 같이 전지구적인 수준에서 자본이동이 이루어지고 개별 국가들은 이러한 자본이동에 대해서 속수무책인 상황에서 "제3의 길"이 성공할 수 있을지는 예측하기 힘들다. "제3의 길"은 유럽적인 정치 상황 속에서 등장한 것이기 때문에 더욱 그 미래는 불투명하다.

그리고 유럽의 복지국가들이 겪고 있는 문제는 단순히 재정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빈곤층의 외존성 문제가 만성적인 실업의 또 다른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기존의 사회민주주의 방식은 한계에 다다랐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이 좌파와 우파를 넘는 새로운 제3의 길이라고 볼 수는 없다. 보다 객관적인 평가는 기든스의 제3의 길이 신용주의적인 사회민주주의 이념의 한 형태라고 볼 수 있다.

기든스가 주장한대로 서구 유럽의 계급구조는 20세기 전반부와 크게 달라졌다. 전통적인 육체노동자를 중심으로 하는 제조업 노동계급의 비율이 크게 줄어 들었고, 제3차 산업의 발달로 서비스업 노동자들이 크게 증가하였다. 서비스업 노동자들은 높은 교육과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전통적인 육체노동자들과는 여러 가지 점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러므로 유럽 좌파들도 선거에서 큰 힘을 행사하는 서비스업 노동자들을 위한 정책을 제시할 필요가 있었다. 새로이 등장한 "제3의 길"이라는 이러한 사회변화를 배경으로 하면서 유럽 좌파의 이념을 구체화한 대안이라고 볼 수 있다.

새로이 등장한 "제3의 길"이 현재 전지구적 자본주의 시대의 모든 문제를 해결 할 수는 없다. 단지 현실적으로 다른 대안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제3의 길"이 대중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새롭게 등장한 "제3의 길"은 또 다른 "제3의 길"에 대해서 대체될 수도 있다. 보다 설득력있는 새로운 대안이 등장하게 되면, 기존의 "제3의 길"은 또 다른 "제3의 길"에 대해서 대체될 것이다. 이러한 대안은 관념적으로 주어지는 것은 아니며,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집단적인 노력에 대해서만 가능해 진다.

현재와 같이 전지구적인 수준에서 자본이동이 이루어지고 개별 국가들은 이러한 자본이동에 대해서 속수무책인 상황에서 "제3의 길"이 성공할 수 있을지는 예측하기 힘들다. "제3의 길"은 유럽적인 정치 상황 속에서 등장한 것이기 때문에 더욱 그 미래는 불투명하다. "제3의 길"이 신자유주의의 대안이 되기 위해서는 신자유주의에 대해서 만들어진 제도들을 완전히 바꾸어야 한다. 신자유주의 질서의 재편은 전 지구적으로 이루어질 때만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